

대부분 번역서...연구 '제자리'

한글날 맞아 살펴본 우리말 부처님 일대기

인류의 영원한 스승 석가모니부처님은 삶 자체가 곧 그의 사상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전생애를 담은 부처님 일대기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은 가장 기본적인 불교입문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부처님일대기는 바로 <석보상절>(釋講詳節 1447년 간행)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1446) 이듬해 펴낸 <석보상절>이 올해로 발간 550주년을 맞았다. <석보상절> 이후 현재까지 나온 우리말 부처님 일대기는 50여종, 그러나 지금까지 출간된 부처님일대기 대부분이 번역서에 치중되고 있고, 일부는 내용면에서 부처님을 신비화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석보상절> 발간 550주년을 맞아 우리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우면서도 내용이 알찬 부처님 일대기 출간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세종대왕의 둘째아들 수양대군이 왕명으로 소현상후 상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당나라 도선의 석가씨보와 <법화경> <지장경> 등에서 가려뽑아 번역한 <석보상절>은 조선조 초기의 불교를 체계화 하고 학문적으로 총정리한 작업의 소산이자 당시 불교학과 서지학 인쇄술 등 총체적인 문화수준을 말해주는 귀한 자료다.

우리나라 최초의 불경번역서인 <석

보상절>은 한문을 모르는 일반 저층에 널리 읽히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만든 훈민정음을 보급한다는 뜻도 있었다.

최초의 한글 번역서 <석보상절>을 효시로 한말(韓末)에 안진호스님이 <삼화(三化)상(上)>을 펴냈고, 그 뒤에 몇몇

출판사에서도 신편 <팔상록>을 펴냈다. 김대은 스님의 <석가모니 일대기>와 역경원에서 펴낸 <부처님의 생애 상·하> <석보상절 상, 하>를 비롯 <인간 불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재미있는 석가이야기> <인간 석가 상, 하> <붓다> <고타마 붓다의 생애> <신팔상록> 등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책

들이 나왔다.

단순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것에서 그 생애와 사상을 조명한 것 등 지금까지 발간된 책들 상당수가 외국 번역서다.

번역서의 저서들 가운데 대부분의 부처님 일대기들은 <불본행경>(佛本行經)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불소행찬>(佛所行讚) 등 불경을 바탕으로 재편집된 것들이어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또 이들 가운데 어떤 상·하 <석보상절 상, 하>를 비롯 <인간 불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재미있는 석가이야기> <인간 석가 상, 하> <붓다> <고타마 붓다의 생애> <신팔상록> 등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책들이 나왔다.

단순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것에서 그 생애와 사상을 조명한 것 등 지금까지 발간된 책들 상당수가 외국 번역서다.

번역서의 저서들 가운데 대부분의 부처님 일대기들은 <불본행경>(佛本行經)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불소행찬>(佛所行讚) 등 불경을 바탕으로 재편집된 것들이어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또 이들 가운데 어떤 상·하 <석보상절 상, 하>를 비롯 <인간 불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재미있는 석가이야기> <인간 석가 상, 하> <붓다> <고타마 붓다의 생애> <신팔상록> 등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책들이 나왔다.

'석보상절' 등 50여권 나와 지나친 신격화 지양해야

출판사에서도 신편 <팔상록>을 펴냈다. 김대은 스님의 <석가모니 일대기>와 역경원에서 펴낸 <부처님의 생애 상·하> <석보상절 상, 하>를 비롯 <인간 불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재미있는 석가이야기> <인간 석가 상, 하> <붓다> <고타마 붓다의 생애> <신팔상록> 등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책들이 나왔다.

'문화쫄대 세우자' 책으로 열강

김준호씨 '우리소리 우습게...' 펴내

민속학자이자 소리꾼인 김준호(35)씨와 한국무용가 손심심(35)씨 부부가 전국을 열풍의 도가니로 돌아다녔던 '우리 소리' 강연을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이르과 실천)라는 제목의 책으로 내놓았다.

이들은 전통문화라는 비인기 소재를 가지고 지난 6월18일 MBC <10시! 임성훈입니다>에 출연한 뒤 전국적인 명사가 됐다. MBC는 그의 강연을 7월에 심야특집으로 방영하고, 또 추석연휴때도 이틀동안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 책은 그동안 강연하면서 못다 풀었던 내용들을 더

욱 알차게 보완하고 정리한 것이다.

우리민족이 세계 어느민족보다 타락에 능한 이유를 짓가락 장단때문이라는 흥미있는 화두를 던진 김씨는 짓가락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음식문화를 통해 우리의 민족성과 문화에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불교문화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문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물놀이 형식 또한 절에서 예배할 때 사운하는 사물에서 유래한 것"이라 말하는 김씨는 젊은 시절 누더기 승복한벌로 전국방방곡곡을 떠돌며 우리소리 지킴이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우리민족이 세계 어느민족보다 타락에 능한 이유를 짓가락 장단때문이라는 흥미있는 화두를 던진 김씨는 짓가락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음식문화를 통해 우리의 민족성과 문화에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법학사상 **해학번역**

'일불승' 사상 中·日학설 면밀히 검토

<법학사상>은 83년 일본 춘추사에서 펴낸 강좌 대승불교 네번째 <법학사상>의 완역본이다. 이 책은 <법화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통해 경의 중심사상을 밝히고, 다른 관련서와 달리 <법화경>의 독특한 사상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법화경>의 특색을 살펴 대승불교에서의 사상적 위치를 밝히고, <법화경>의 여래수행품을 중심으로 <법화경>의 불타관을 살핀다. <법화경> 전반부의 중심 사상이 '일불승'의 사상을 응수, 세친을 비롯 중국 일본 등 제학자의 학설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해 일승사상의 특색을 고찰한다. 특히 천태지의 법화삼대부(法華三大部)에 설해진 <법화경>에 관한 중요한 교리와 사상을 해명해 법학사상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경서원 1만2천원>

환제의책

조주록 탐구 고목 지음

조사 말씀 쉽게 접근하는 통로역할

선(禪)은 말과 생각이 끊어진 경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를 스스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선을 말과 생각으로 하고, 본분을 말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병폐에 빠지게 된다. 조주사는 이러한 범부의 정량(情量)을 깨뜨리고 본분의 일로 나아가 바를 빚음을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끌어 준다. 간결한 일상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조주록>은 가장 조직적이고 완벽한 선사상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목중의 이목이라고 한다. <조주록 탐구>는 조사의 말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고 있다. 이 책은 <조주록>의 모든 어구에 내포된 선사상을 그 요지에 따라서 테마화하고, 다시 이것을 체계화시켜 선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삼양 9천원>

'수행으로 가는 길' 초심자의 방향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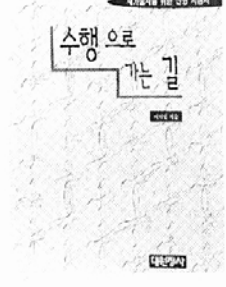
이제열법사 펴내

이제열법사(유마선원장)가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지침서 <수행으로 가는 길>(대원정사)를 출간했다.

도개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 펴낸 이 책은 한국불교가 안고있는 신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한국불교 변화야 한다'에서는 신도들의 수행구조에 대한 질적 변화를 촉구하면서 삼보를 받들고 공양하는 것도 자기자신에게 수행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해탈의 길을 지도해 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라 강조한다.

제2장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제3장 '생활 속의 수행'에서는 기도의 의미와 발원,



진정한 귀의의 대상, 경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염불의 자세, 여러가지 참선법, 보살도의 실천 등 생활 속의 수행법을 정리했으며 제4장 '바른 삶 바른 삶' 제5장 구름 넘어 허공을 보라'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향해 정진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책

▲부처에서 짐승까지=파괴속에 치밀한 논리가 있고, 거칠 것 없는 자유로움 속에 또한 치열한 고뇌가 있는 선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널리 알려졌던 <선문염송> <진등록> <임제록> <조주록> <벽암록>등과 한국과 일본, 인도의 옛이야기들 중에서 비교적 쉽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을 뽑아 정리했다.

▲사십구재란 무엇인가=행원생활 불교시리즈 제1권 <사십구재란 무엇인가?>는 사십구재를 통해 인생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오늘날란 어제의 연속이며 또 오늘은 내일

의 연속상에 있는 것과 같이 금생(今生)은 전생의 연속이며 또 내생(來生)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불교의 윤회설과 인과설을 설명하고 있다.

▲반야심경 금강경=1974년 고이 기영 박사가 펴낸 <반야심경 금강경> 개정판이다. 이 책은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산스크리트 원문과 한문을 비교공부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반야심경>부분에는 이기

영 박사의 논문 <원효에 의한 반야심경 신해석>이 실려있으며, <금강경> 부분에는 조선초기 고승 함허당 득봉스님이 편찬한 금강경오가해 가운데 육조 혜능의 견해를 토대로 한 별개의 주를 첨부했다. <한국불교연구원 8천5백원>

▲그 겨울, 대바람 소리=정남 원도 기상대에 근무하는 불자 주봉구씨가 펴낸 에세이집. 79년 <시와의식>에 당선된 후 집필활동을 해 온 주씨는 시집 <머슴새> <향토 한 줄> <잠들지 않는 바다>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책은 주씨가 시로써 형상화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신아출판사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3	불교입문	조계종교원	조계종출판사
4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한마디	일 타	효 립
5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립	행 원
6	괴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 허	교 립
7	인연(작은책)	서 정 주	민 속 사
8	신반야심경장외	혜 탐	불교시대사
9	살이계신 붓다 살이계신 그리스도	틱 낙 한	한 민
10	증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구입문의: (02)737-0695

—禪書의 白眉, 宗門의 寶庫

碧巖錄 譯解

일우스님이 생존시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훈을 기울여 필사와 역해하신 것을 고급한지에 담아 낸 소장가치가 높은 벽암록 완결판!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나 술어까지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를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와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짚은 언어 맛을 수 있습니다.

碧巖錄
:중국 송나라의 원오(圓悟) 설두(雪竇)선사가 지은 송고집(頌古集)을詳한 선수행의 뛰어난 지침서. 10권. 碧巖集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 ● 정가 330,000원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738-6270, 735-7202 팩스: 733-1016